

현대노조, 임금격차 해소 강력요구

분할이전 인상요구에 분할 이후 해소 맞서 ... 현대정유는 소극협상

대산단지의 정유·석유화학기업들의 임금·단체협상은 삼성Atofina가 조용한 가운데 현대석유화학과 현대정유는 주5일 근무제를 놓고 한창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Atofina는 노동조합이 없고 임금인상도 3월 끝마친 상태여서 다른 석유화학기업과는 달리 조용한 분위기이다.

반면, 현대석유화학은 6월30일과 7월1일 4차, 5차 본교섭을 가졌다.

4차 임금교섭은 3차 교섭의 마무리와 동시에 노조가 임금 요구안을 제출하며 회사의 제시안을 요구하면서 추후 분할시기와 일치하는 임금 격차분 완전해소를 거론했으나 회사는 분할 이후의 주주회사에 달려 있다며 분할시점에 완전해소 시점을 맞춰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회사가 임금에 대한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행동지침 1호를 결의하고 간부들은 조끼를, 조합원들은 배지 착용을 시작했고, 매각과 관련해 분할되더라도 단일노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5차 단체교섭은 주5일제 주40시간과 관련한 단협보충협약으로 진행돼 주5일제에 대한 잠정협의를 문서화했고,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7월7일과 8일에도 회사가 임금인상안 제시를 기대하며 6차, 7차 교섭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석유화학 노조의 임금단체협상 요구안(2004)

요구안		내 용
보충협약 요구안	근로시간	일근무자-1일8시간, 주5일 40시간 기본 (토요일 유급휴일) 교대근무자-5조3교대 원칙 -주2일 근무 위해 오전근무 후 3OFF, 저녁근무 후 3OFF, 야간근무 후 2OFF (월2회 16시간 교육: 주 40시간 미달시간)
	유급휴일	주휴일-매주 토, 일요일 -시간급 계산은 통상임금의 1/162.62
임금 요구안		임금인상 요구율 13.2% -조합원 평균임금 2,795,693원을 평균임금 3,165,571원으로 인상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 제시액: 3,220,317원
임금협상 보충요구안		성과급 명문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화 -다년계약직의 정규직화 -계약직 상여금 차별 철폐 (상여금을 600%에서 800%로 인상) -사무기술직과 전문기술직의 정규직화 기간을 3개월로 동일화 -하청노동자의 도급가 현실화 -청소, 관리직 하청 노동자의 상용직화 지역사회 발전기금 조성 및 우선채용 -지역발전기금 매출액의 0.01% 출연 -신규인력 충원시 30%를 지역주민 우선채용 -해외연수 전직원 확대를 매년 100명씩 순차적으로 시행 -개인연금 월 10만원(10년) 신설

현대Oil-Bank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를 협상하기 위해 6월22일 1차, 2차 실무소회의를 가졌고 합의부분은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요구안 등에 대해 노조나 회사가 내부안을 확정하지 못해 별 진전이 없

는 상태이다.

주40시간 주5일제를 요구하는 노조도 주간 근무를 몇조 3교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 묘안이 없는 상태이지만 일단 시작된 주5일 근무제를 주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금협상에 관해서는 정유기업의 협상안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김태경 현대Oil-Bank 노조위원장은 밝혔다. <한유진 기자>

<화학저널 2004/07/12>